

농촌 에너지 자립 넘어 수익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드라이브

농식품부 장관, ‘솔바우 마을’ 방문
농업 에너지 대전환 실현한 마을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전국 각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독려에 나선다. 특히 주민·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사업의 본보기가 될 한 지역을 방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3일 강원 춘천 사북면 송암리에 위치한 솔바우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해, 이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선도 모델로 꼽힌다. 이른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100%)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

솔바우 마을은 농촌 주택 및 농업 생산에 필요한 소요 전력(706MWh)의 96%(686MWh)를 자립하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가 중장기 추진을 검토 중인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이미 달성한 사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하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전담반)’ 가동을 개시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살핀 것. 지역 내 추진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 현장의 목



전남 영광에 조성된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뉴시스

소리를 수렴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찾은 마을발전소에서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해당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또 하나의 햇빛소득마을 성공 사례를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농지를 유지하면서 소득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에너지 자립, 농업 생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고효율화 전략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암리 발전소는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농지 전용을 통해 연 657MWh(메가와트시)의 전력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간 1억 원가량의 발전 수익 낸다. 이를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재단 기부 ▲노인동행택시 운영 ▲우유배달 등 공동사업에 활용 중이다.

송 장관은 솔바우지역 친환경 완전미 가공시설도 방문했다. 솔바우영농조합법인의 홍성수 대표는 “중동전쟁을 접하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다”며 “현재 연간 전기사용량의 55%를 자급하고 있는데 이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극복과정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다시 찾는 어촌 만든다” 해수부, 휴양마을 4곳 선정

노후화 시설, 고품격 숙박시설로 개선
확정된 마을 2년 동안 총 8억 지원

낙후된 어촌에 현대식 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민 등이 다시 찾고픈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책사업이 최근 한창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대상지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 장사마을 ▲전남 함평 석두마을 ▲경남 거제 계도마을 ▲경남 남해 문항마을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지난 2015년 이후 추진돼 왔고, 최근 들어 크게 변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촌 마을의 노후화된 체험장, 숙박시설을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고품격 숙박시설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유포마을의 경우, 고도화사업을 통해 소규모·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했다. 이후 체류형 관광객의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기준 마을 관광소득이 100%가량 늘었다.

올해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어촌 마을 18곳이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가 포

함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중 4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18곳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된다.

속초시 장사마을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에 특화된 숙박환경을 조성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고 어촌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군 석두마을은 기존 카라반을 리모델링하고 글램핑장을 새롭게 만든다. 거제시 계도마을은 낚시객들을 위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남해시 문항마을은 노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생태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환경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9~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농협인삼 런칭 행사’. /농협

K-인삼 세계로… 농협, 이스탄불서 설명회

유통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 참석

농협이 올해 K-인삼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리 인삼의 품질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설명회를 가졌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한국 농협인삼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안성인삼농협과 위음 튀르키예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튀르키예 농무부 관료를 비롯해 주이스탄불 대한민국 영사관, 현지 미디어·유통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한국 인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효능을 소개하고, 현지에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 둔화에 ‘청년뉴딜’ 본격 가동

재경부-고용부 TF 회의
채용·교육 프로그램 개시

정부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고용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낸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고용동향 분석과 함께 청년뉴딜 및 직접일자리 사업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만 명 증가했으나, 전월과 비교해 증가 폭은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서비스업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역시 감소세가 지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서 장병들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속됐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청년층과 60대 이상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고용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를 5~6월 중 본격 개시한다.

우선 대기업이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아카데미’는 현재 10대 그룹을 포함한 70여 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규모의 교육과정 개설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참여기업 및 청년 선발을 거쳐 6월 중 ‘1호 아카데미’를 개설할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방폐물 시설 완공 하반기 운영 시작

기후부-원자력환경공단 준공식

국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 거점이 될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준공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 더욱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오후 경주시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천연 방벽과 공학적 방벽을 구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완공된 경주 시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작년 말 공사를 마치고 올해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2단계 시설은 200L 드럼 기준 총 12만 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다. 시설은 특히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리히터 규모 약 7.0의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간담회 열고 상세 추진방향 설명
6년 내 저장탱크·접안시설 마련

부산항만공사(BPA)가 국제 탄소규제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선박 연료 병커링(급유)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6년 내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 일대에 그린메탄올 저장탱크·병커링 운반·공급선 간 접안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

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친환경선박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 계획수립 간담회’가 개최됐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상세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추진 방향은 오는 2032년까지 부산항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내 12만3000㎡ 부지에 37만㎡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비롯해 15만㎡ 규모의 접안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